

자연·예술 어우러진 문화경관도시 조성

●광주시 '2040 도시경관계획'

중점관리구역 광천사거리·백운광장 등 7곳 확대 획일적 규제 탈피 '지역별 규제 방향 차등' 설정

광주시에 장기적 도시경관 방향을 제시하는 '2040 광주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1일 공고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40 광주시 도시경관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광주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은 개성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립하는 전략계획이다. '경관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주시에 2021년 5월부터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100여명의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경관 의식 조사, 경관자

원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경관계획은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경관도시, 광주'를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가치개발 ▲활력 있는 도시경관 연출 ▲경관자원 기능성 발굴 등 3개 목표 계획을 담았다.

계획안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확대한 게 골자다.

기존 2000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무등산 ▲송정역

세권 ▲아시아문화전당 ▲영산강 등 4개소는 2040 경관계획에서 유지(영산강 구역에는 광주천 추가 지정)하면서 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고층건축물이 허용되는 상업지역인 ▲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 3개소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총 7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추가된 구역들은 창의적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관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은 16층 이상이다. 광주시는 하

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 대상을 구역별 세분화해 3층부터 10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이번 경관계획을 통해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차등적 규제 방향을 제시, 광주시의 우수한 경관을 조화롭게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은 개성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새로운 도시경관계획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적 규제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청사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과 경관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은 16층 이상이다. 광주시는 하

광주시,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 종료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

광주시는 20일 '2021년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광주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이하 높이관리 원칙)이 종료된 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광주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추진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그동안 광주시는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최고 높이를 제한했던 일률적인 건축물 높이 규제 운영을 종료하고 '2040 광주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인 도시경관 관리,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는 공고일(2023년 6월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관원 심의 과정에서 시민에게 양호한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동시에 도시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은 "건축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에만 급급하던 예전과 달리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마철 산사태 등 재난 대응 강화

구례서 실제상황 가정 대피훈련...대응체계 사전 정비

전남도는 20일 구례 은어마을 일원에 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는 '2023년 산사태 재난대비 대피훈련'을 했다.

이번 대피훈련은 산사태 예측정보 발령에 따른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선제 주민 대피 등 산사태 대응 체계를 숙지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가정해 추진한 훈련은 산사태 예측 기상정보를 받아 오는 1단계(주의·경계) 1천95명, 2단계(심각) 5천86명을 최우선 대피시키도록 발령한 뒤 취약지역 인근 주민에

게 마을 안내방송을 하고 대피로를 따라 지정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실제 상황에 맞게 진행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우기 전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2천27개소와 산립 내 공장, 도로 등 인위적 개발지 6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여름철 산사태 예보 시 선제적 주민 대피 체계 구축으로 도민 안전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취약지역 주민에 대상 훈련은 산사태 예측 기상정보를 받아 오는 1단계(주의·경계) 1천95명, 2단계(심각) 5천86명을 최우선 대피시키도록 발령한 뒤 취약지역 인근 주민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화 봉송 준비 '착착'

도, 구간 확정·주자 모집...내달 5일까지 시·군 신청

전남도가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봉송주자를 모집하고 채화·봉송 계획을 확정하는 등 체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성화 봉송 주자는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제104회 전국체전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7월 5일까지 해당 시·군 체육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군 추천과 공모를 통해 총 688명의 주자를 선발하며 성화 봉송에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전이 되도록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주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주자는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 973.63km를 달리게 되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화를 동시에 봉송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 축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성화 채화 및 봉송 구간 계획을 확정했다.

성화 채화는 특별 채화와 공식 채화로 구분해 추진된다. 오는 9월 해남 땅끝과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을 상징하는 특별 채화 행사를 개최해 세계

로 뻗어나가는 전남의 저력과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어 10월3일 강화도 마니산과 목포시 일원에서 각각 채화한 체전 공식 성화와 전국장애인체전 공식 성화는 전남도청에 안치하고 10월10일 특별 채화와 공식 채화한 성화의 합화식 후 도내 22개 시·군을 4일간 순회하고 10월13일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으로 입성한다.

강인중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올해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개최된 대대인 만큼 성화 봉송 주자가 되는 것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성화 봉송 주자 모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3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점검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20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실 직원들이 관내 5·18민중광장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스마트 그늘막은 자외선과 풍속에 의한 진동, 온도,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늘막이다. /김애리 기자

목포서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박람회

오늘 신안비치호텔...45개 기업 346명 채용 예정

전남도는 20일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 공급 지원을 위해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박람회'는 45개 기업이 참여해 34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조선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해 오후 2시까지 행사장에 방문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6월 화순지역 광업소 폐광에 따른 실직자나 이직 희망자도 조선업 취업박람회에 참여시켜 조선업 일자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박람회'는 1대 1 현장 면접과 함께 조선업 취업 지원 설명회도 진행된다. 또 직업 심리검사,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화순읍 대단지 아파트입구 빌딩부지를 급처분합니다.

- 1) 주거1층 대지1,505㎡
- 2) 2차선 도로변 앞면넓음 직사각토지
- 3) 유동인구 많음
- 4) 지상물 전무 나대지 바로 건축 가능
- 5) 병의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차빌딩 등 다용도부지
- 6) 매매가: 원매자 상담후 시세이하 [급처분]합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장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갖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임·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른 상담◀

정차적 편의 법정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8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